


보 도 자 료			
보도요청: 2021.3.29.(월) 10:00 부터			
연락처 : 010-5824-0290(에디터 박한명)	주관 : 미디어연대		

미디어연대 · KBS노동조합 2021 보궐선거 「팩트체크+ 보고서」 2주차 발표 (3.29)

“KBS, MBC 등 공영방송과 TBS, 절박한 여당 위해 ‘네거티브 폭탄’

- 오세훈·박형준 의혹, 왜곡·선동에 올인 -

“KBS <뉴스9> 이판사판 막가는 보도, 막무가내 의혹제기”

- 더 교묘하게, 더 교활하게, 불공정 보도 심화 -

“‘MB 아바타’ 민주당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MBC 뉴스데스크>”

- 여당 후보 의혹은 은폐, 야당 후보 의혹은 ‘불지르기’ 보도, 질적·양적 불균형 심각 -

“TBS,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김어준의 선거운동>도 시작”

- 오세훈·박형준 의혹 덧씌우고 부풀리기, 박영선은 싸고돌기 -

정권심판론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야권이 힘을 받고 있는 4·7 보궐선거 정국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메인뉴스와 편향성 논란이 거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공영 언론들의 여당 구하기가 네가티브 폭탄 공세로 이어지며 혼탁한 선거정국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슈의 하나인 야권단일화의 경우, 단일화 효과를 우려한 듯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성사는 축소보도하고 여당이 야당 후보들을 향해 제기한 부동산 의혹은 최대한 키웠다. 반면 여당 후보에게 제기된 부동산 의혹과 막말 논란엔 침묵하거나 축소보도로 일관했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황우섭 조맹기)와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 정책공정실장 이영풍)은 29일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 주요 방송을 대상으로 2인의 대표와 박한명 장옥님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3월 22일(월)부터 3월 28일(일)까지 7일간을 중심으로 보도내용을 분석한 보궐선거 「팩트체크+ 2주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KBS <뉴스9>는 막판 네가티브 폭탄 공세에 올인하는 모습이었다. 오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당시 현장에 나타났으며 직접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5건의 관련 보도를 이어가며 의혹을 최대한 키웠다. 그러나 약 15년 전 목격자의 일방적 증언에 기대 특종이라며 보도한 것은 언론보도의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 의도적인 선거개입의 소지가 크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목격자로 자처하는 사람의 오래전 단순 기억에 의존해 특정 후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를 당사자 확인이나 반론도 없이 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KBS는 같은 리포트에서 오 후보에게 반론권을 주지 않고 오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다음 날(3.27) 반론내용을 보도한 것은 악의적·편향적 보도행태로 방송 공정성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KBS <뉴스9>은 이 외에도 박영선 후보 리포트는 철저하게 오 후보를 향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오 후보 측이 박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보도행태는 민주당의 네가티브 전사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보도다.

MBC <뉴스데스크>의 여당 후보 정책은 홍보, 야당 후보 의혹은 부풀리기 보도도 계속됐다. 철저하게 민주당 쪽 후보 입장을 반영한 논조였다. 특히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이슈에서 민주당 제기 의혹은 상세하게, 오 후보와 국민의힘 측 해명, 반박은 간단하게 처리하는 식으로 양적, 질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다. 반면에 박영선 후보 측 각종 의혹과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선 침묵했다. 사실상 은폐수준으로 보인다.

또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문건을 입수한 <뉴스데스크>는 MB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의 선거전략인 'MB 아바타' 프레임을 그대로 쫓아 보도하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박 후보의 사찰 관여 증거 없이, “~(사찰) 보고받았을 것” “~알았을 것” “~소명해야”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한 민주당 정치공세와 주장을 검증, 비판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MBC가 여권이 짜놓은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부추기는 보도행태다.

특히 3월 24일 <단독보도 박형준 정무수석 때도 국정원 사찰 문건 14건 보고>에서 <뉴스데스크>는 '박형준 정무수석 배포 국정원 문건(2010년)'이라는 자막으로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마치 박형준 당시 수석이 직접 작성해 배포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보도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8조(객관성)제1항, 제12조(사실 보도)제1항 위반 소지가 크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도 편파의 극치를 달렸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에게 각종 의혹을 덧씌우고 부풀린

반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연일 감싸고 띄워줬다. 4.7보선의 야당 후보가 오세훈, 박형준 후보로 압축된 이후, 연일 <뉴스공장>의 방송내용은 두 야당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제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보다는 거의가 매일 반복되는 내용으로 유권자에 대한 세뇌방송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아래 붙임 : 팩트체크+ 첫주차 보고서)

「팩트체크+ 2주차 보고서」

차 례

I. KBS <뉴스9> 절박한 여당 위해

‘네가티브 폭탄’ 올인

- 민주당의 네가티브 전사가 된 KBS

II. 여당이 짠 프레임대로 움직이는

MBC <뉴스데스크>

- ‘MB 아바타’ 프레임 박형준 일방 공격,
국정원 사찰문건 입수, 선거공작 의심

III. ‘눈치껏 적당히’ 기회주의 SBS

IV. TBS,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김어준의 선거운동’도 시작

- 오세훈·박형준 의혹 덧씌우고 부풀리기,
박영선은 싸고돌기

V. 기타: YTN과 MBN의 문제적 보도

I. 야당 후보 죽이기 '네거티브 폭탄' KBS <뉴스9>

1. '교묘한 여당 선거지원' 민주당 네가티브 전사가 된 KBS

○ 관련 기사 5건

▶ 오세훈 처가, 개발 직전 내곡동 땅 경계 측량 (3.2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8674>

○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후보는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고 해명해왔지만 땅 개발용역 9일 전 처가가 땅 경계를 직접 측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 오 후보도 동행했다고 땅 경작인들이 증언했습니다.

▶ 오세훈 처가, 2005년 6월 개발용역 직전 내곡동 땅 '경계 측량' (3.2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8678>

○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속보입니다. 서울 내곡동 106과 110번지 4천4백여 제곱미터. 이 땅은 지난 2009년 11월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수용되면서 오 후보의 부인과 처가는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오 후보는 그 동안 이 땅의 존재나 위치를 몰랐고, 개발지구에 포함된 것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복수 경작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있었다" (3.2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8679>

○ 2005년 측량 때 이 땅에선 여러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측량 당시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측량을 하면 신청인이 입회, 서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국토정보공사는 입회인 정보를 비공개한 후 측량 결과도를 공개한 상태입니다...측량 당시 현장에 갔었느냐는 질문에 오세훈 후보 측은 측량 사실조차 알지 못했이라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장인과 큰 처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 저널리즘에서는 사실(fact)이라고 하더라도 진실(truth)이 아닌 것이 문제가 된다. 내곡동 땅에 대한 측량을 했다는 사실이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리포트의 허위보도 논란은 추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다만 3.26(목) 리포트에서 '오후보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자의 말에 대해 균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같은 리포트에서 오후보에게 반론권을 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오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다음 날 3.27(금) 반론내용을 보도한 것은 악의적·편향적 보도행태로 방송 공정성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박형준 후보, 주거용지 내 불법 창고...“법 위반 몰랐다” (3.2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6813>

○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자신의 땅에 있는 가게 건물을 창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법을 어긴 건데 박 후보 측은 잘못된 일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이 사무용 가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관계자/음성변조 : "행위제한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불허 용도가 '허용 용도 외의 용도는 다 안 된다' 그렇게 적혀 있을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 캠프 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측량팀장 “오세훈 입회했다”...입회 서명은 누가 (3.2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9264>

○ 오세훈 후보 부인과 처가 소유의 서울 내곡동 땅에 대한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고 기억하는 당시 경작인들의 주장을 이틀 전 9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KBS가 당시 직접 측량을 했던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을 접촉한 결과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서울 내곡동 땅을 측량할 당시 땅

주인 측에서 두 명이 입회한 사실에는 경작인들과 오 후보 측이 일치합니다...반면 측량팀장이었던 류 모 씨는 취재팀과 전화 통화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며 기억을 설명했습니다...류 씨는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 "측량이 끝날 때쯤 하얀색 상의에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집권 여당과 공영방송이 사실상 원팀을 이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 지난 3.26(금) KBS <뉴스9>는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증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증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 야당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15년 전에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다고 하고, 그것이 오세훈이라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 증인들이 자신의 증언을 입증할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 보도가 진실하다고 믿을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 최근 KBS <뉴스9>와 TV-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을 팩트체크 해본 결과 정권 편향적인 내용이 상당 수 확인되었다. 이런 보도 행태는 KBS가 민주당 선거캠프를 지원한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2021.03.28. KBS노조 성명 “공영방송이 사실상 집권당 선거운동, 이러려고 그동안 그렇게 공정방송을 부르짖고 살았었나?” 참조).

☞ 한국경제신문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3.27)

○ <‘오세훈 내공동’도 ‘박형준 엘시티’도 안 먹히네..與 무슨일?>, “‘오세훈 쓰레기’라고 해도 문 정권 패거리보다는 낫다. ‘그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십년 전 문제 삼았어야지 그동안 뭐하다 이제 와 이러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유창선 평론가...‘여당이 선거를 치르는 광경을 보면 잘못했다는 읍소 전략으로 가도 시선을 줄까 말까 한데, 도리어 또 다시 정의로운 심판자를 자처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올인하고 있으니, 반감은 더욱 확산된다.’면서 ‘논리적으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고 싶지도 않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 그냥 지겹고 꼴도 보기 싫은 거다’라고 직격했다.”

○ 팩트체크 플러스: KBS <뉴스9>은 헤드라인까지 5개, 본 기사 4꼭지가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선거 10일 전까지 야당에 대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편파방송이다. 공영방송 KBS는 후보자와 진실 공방까지 벌렸다. KBS <뉴스9>은 민심을 생각하고, 현실성 있게 기사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 전체를 균형감을 갖고 기사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네거티브를 잠재워야 할 공영방송이 오히려 네거티브를 부추겼다. 여당 후보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당 후보에게 단독기사로 비리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혹이 사실이면, 과장할 필요가 없이 그 사실만 직시하

면 된다. 공영방송 KBS는 부역자, 나팔수 등의 비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더욱이 급기야는 KBS는 오세훈 후보에 피소 <오세훈 측, '뭇 내곡동 측량 보도' KBS 고발... '악의적 허위'> (연합 나확진 기자, 3.28). 이 보도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

○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판례문헌: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①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더 교묘하게 더 교활하게' 심화되는 여당 선거운동 지원

○ 관련 기사 7건

▶물고 물리는 '내곡동 땅'... 'LH 사태'가 부른 부동산 선거 (3.2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4813>

○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권에선 하루종일 오 후보 부인과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을 놓고 물고 물리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2007년 서초구의회 회의록에 당시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시찰 사실이, 2009년 국정감사 회의록엔 국토부와의 협의 발언이 있다며 내곡지구 개발이 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는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김태년/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 "시장이 직접 현장 시찰까지 하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국토부가 지난 2007년 내곡지구의 임대주택단지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인정한 문서를 찾았으며 '셀프보상' 의혹은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나치의 선전상인 괴벨스를 연상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역시 정말 찌질한 정당이다.'"

▶오세훈, 안철수 꺾고 승리... "정권 심판 명령" (3.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5802>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이겼습니다...무상급식 반대로 시장직을 사퇴한 지 10년, 오세훈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제치는 이변에 이어 이번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꺾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국민의힘 내에서는 LH 투기 사태 이후 더 높아진 ‘정권심판’ 여론이 제1야당 후보로 결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반박을 준비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집중 파고든다는 전략입니다.

▶박영선, 오세훈 승리에 “낡고 실패한 시장” (3.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5804>

○ 정권심판론에 맞서 내곡동 땅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당장 오 후보가 서울시장 때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중도사퇴했던 점을 부각했습니다...유치원 무상급식, 10만 원 재난위로금을 비롯해 25개 구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면 과제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오 후보 아내와 처가의 내곡동 땅에 대해선 ‘셀프 보상 의혹’에서 ‘공직자의 거짓말’ 프레임으로 확산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3월 23일 오세훈이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고 서울시장 선거판이 박영선-오세훈으로 결정되자 KBS <뉴스9>는 오세훈과 박영선의 동향을 한 쪽지씩 보도한다. 여야 한 쪽지씩 배분하고, 야권을 먼저 보도하는 등 균형성을 맞추는 시늉은 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교묘하게 여당 편을 들고 있다.

☞ 교묘해지고 꼼꼼해지는 주구저널리즘

-오세훈이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고 서울시장 선거판이 박영선-오세훈으로 결정되자 KBS <뉴스9>는 오세훈과 박영선의 동향을 한 쪽지씩 보도한다. 여야 한 쪽지씩 배분하고, 야권을 먼저 보도하는 등 균형성을 맞추는 시늉은 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경악할 수밖에 없다(3.23).

-앵커멘트: 앵커는 오세훈과 관련해 단일화 팩트만 제시하고 끝낸 반면, 박영선에 대해서는 박영선이 주장하는 선거 프레임을 소개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의 전략까지 소개하고 있다.

-리포트도입부: 오세훈 리포트는 뜬금없이 이번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고 오로지 민주당이 네거티브 소재로 쓰고 있는 무상급식 사퇴로 시작한다. 이 점은 박영선의 리

포트에서 박영선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중도사퇴했던 점을 부각했습니다" 라고 다시한번 강조되기도 한다. 반면 박영선 리포트는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내세우고, 심지어 그것이 "정권심판론 대신 '누가 서울의 미래에 적합한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라는 해석까지 붙여준다.

- 리포트 내용 전반: 오세훈 리포트는 대부분을 단일화 이슈와 관련된 반응을, 그것도 박-오 대결의 주요 쟁점과 관계없는 내용에 할애하고 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단일화 과정에서 표출된 갈등을 넘어 화학적 결합까지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대목"이라는 부정적 시각의 견해를 들이민다. 박영선 리포트는 철저하게 오세훈을 향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호 공방: 오세훈 리포트는 오세훈 측이 박영선을 공격하는 포인트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세훈이 오직 수세에 몰려있다는 이미지를 씌운다.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반박을 준비한다"는 내용은 오세훈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빌려와 민주당의 어젠다를 강화시켜주고 있다. 마치 오세훈은 박영선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는 듯한 결과다. 박영선이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도쿄 아파트 논란 같은 내용 또한 전혀 소개되지 않는다. 오세훈의 인터뷰도 마치 오세훈이 똑같은 네거티브로 선거판을 흐리겠다는 식의 맥락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박영선 리포트는 시종일관 박영선의 공격 포인트를 부각시킨다. 실패한 시장이라느니, 중도 사퇴한 시장이라느니, 아직도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시민을 차별한다느니, 말바꾸기로 일관한다느니, '셀프 보상 의혹'에서 '공직자의 거짓말' 프레임으로 확산시키는데 집중한다느니 하는 민주당의 모든 비난을 반영해주고 있다.

- 공약 등 소개: 오세훈 리포트는 오세훈의 공약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반면 박영선 리포트는 박영선의 공약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쁘게 포장을 해주는 성의까지 보이고 있다.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든지, "유치원 무상급식, 10만원 재난위로금을 비롯해 25개 구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든지 하는 소개는 물론이고, "당면 과제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등 박영선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다(2021.03.24. KBS 노동조합 성명 "교묘해지고 꼼꼼해지는 주구저널리즘" 참조).

▶민주 "똥, 이명박 시즌2, 극우정치인...朴 "LH 사태 원조격, 이해충돌" (3.2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6811>

○ 여야의 공세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극우 정치인'이라면서 각을 세웠습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명박 아바타'를 넘어선 '극우 정치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로 부르며 막말 선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2019년 10월 3일 '문재인탄핵국민대회' :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을 헌정 유린의 죄목으로 파면한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 "극우 집단인 태극기 부대에 앞장선 오세훈 후보의 시장 출마는 그 자체로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행동이고, 촛불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이명박 시즌2가 허용이 되면, 그동안의 우리가 이뤄왔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민주화, 공정, 이 부분이 다시 후퇴할 것입니다."...[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서울이 적어도 전국 평균 정도의 매출 회복으로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구나."]

▶ 뭣 "朴, 문재인 아바타, 박원순 시즌2"...김종인 호남행 (3.2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6812>

○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 아바타'라고 비판했는데요...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에 나섰던 주자들을 영입하면서 세 불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저는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 싸우고 반드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피해자가) 계속 불안에 떨면서 숨어있어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독재자', 박영선 후보를 향해선 '문재인 아바타'라고 비판했습니다.

○ 3월 24일 KBS <뉴스9> 박영선과 오세훈에 관한 리포트는 거의 동일한 길이로 제작하는 등 마치 균형을 잡는 듯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박영선을 밀어주는 듯하다.

- 먼저 타이틀에서 박영선과 오세훈이 상대방을 각각 이명박 시즌2, 박원순 시즌2라고 부른 것을 소개하지만, 박영선은 "LH사태 원조격, 이해충돌"이라는 박영선의 주장을 소개하는 반면 오세훈 리포트에는 뜬금없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김종인 호남행"을 추가한다.

- 리포트의 구성을 보면, 박영선 리포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영선의 오세훈 공격 내용을 소개하거나 박영선의 공약을 소개한다. ① 오세훈이 극우 정치인이라는 주장, ② 내곡동 땅 의혹이 '셀프보상'이자 '이해충돌'이라는 주장, ③ 오세훈이 이명박 시즌2라는 주장, ④ 10만원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주장이다. 또 박영선의 리포트에는 과거 오세훈의 발언을 박영선의 의도에 맞게 앞뒤 맥락을 자르고 삽입해 박영선의 의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오세훈 리포트에서는 오세훈이 박영선을 공격하거나 공약으로 소개된 내용은 박영선이 박원순 시즌2이자 문재인 아바타라는 주장 단 하나에 불과하다.

- 그리고 박영선 리포트는 오세훈의 발언까지 넣어 박영선의 주장을 강화하는 반면,

오세훈 리포트에는 민주당에 의한 성추행 2차 가해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왜 박영선이 문재인이 아바타고 박원순 성추행의 시즌2인지에 대한 논거는 전혀 소개되지 않는다. 대신 오세훈 리포트에는 안철수와 금태섭의 선대위 합류 소식과, 김종인의 광주 방문 내용을 반 이상 집어넣었다. 안철수와 금태섭의 합류 내용이 오세훈에게 유리한 지점이긴 하지만 상대에 대한 공세와는 결이 다르다.

- 더구나 김종인의 광주 방문 소식의 경우, 서울 시장 보궐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억지로 넣은 것도 모자라 김종인의 방문이 "오세훈 밀어주려고 다시 정치 쇼로 (광주에) 오는 거"라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인터뷰까지 싣고 있다.

- 태극기부대가 극우라면, 그와 동전의 양면처럼 극좌파의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이른바 대진연이라는 집단이라는 것은 그들의 행적을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다. KBS <뉴스9>는 오세훈이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성토했던 것을 오세훈의 약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김종인의 광주방문은 또 다른 극단적 정치단체인 대진연의 입을 빌어 공격한 셈이다.

- 이 리포트는 김종인이 5.18 특별법 제정에 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삽입했는데, 이는 오세훈 진영의 주장을 소개하려 리포트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오세훈을 비판하려고 리포트 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 3.24(수) KBS <뉴스9> 리포트는 마치 박영선과 오세훈의 입장을 1:1로 소개하는 듯하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박영선 리포트는 박영선이 오세훈을 공격하는 모든 내용을 반영한다. 반면 오세훈 리포트는 오세훈 진영의 약점 혹은 문제점을 소개하는 내용이 반 이상 들어있다. 사실상 두 리포트 모두 박영선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2021.03.26. KBS노조 성명 "KBS가 박영선 선대본부인가?" 참조).

▶박영선, 구로에서 출정식...“고3 여름방학 우선 접종, 10년 전 후퇴 안 돼” (3.2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7836>

○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5일)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곳곳엔 후보자들 소개하는 벽보도 붙었는데요. 서울시장에는 이렇게 12명이 출사표를 냈고, 부산시장에는 모두 6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 구로에서 출정식을 열고 고3 수험생들, 코로나 백신 미리 맞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출정식 장소로 서울 구로를 택했습니다. 내리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엔 정치적 고향입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구로 주민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BBK 진실은 그대로 묻혔을 겁니다. 서울시 대전환의 시작, 여기 구로에서부터..."]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청년층 표심을 고려해 첫 선거운동 일정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택했고, 서남권 일대에서 유세를 이어 갔습니다.

▶오세훈, 시청 앞 합동유세…“재개발로 ‘주택 생지옥’ 해소” (3.2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7837>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부터 먼저 돌아보겠다는 계획인데, 오늘(25일) 유세에서 오 후보는 정권 심판하자,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겠다, 두 가지를 내내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는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생지옥'이 됐다며,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 집 문제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독자적인 주택 정책 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문가와 야당 말을 안 듣는 대통령은 독재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 "안철수와 함께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을 사람, 누구입니까? 오세훈 후보 아니겠습니까?"]

○ 팩트체크 플러스: KBS <뉴스9>은 공정성 위반이다. 이낙연 상임 대표를 두 번이나 등장시켜 네거티브 프레임을 확실히 형성시켰다. 그러나 오 후보를 보도하는 경우 안철수 후보를 과도하게 부각시켰다. 야당은 주제가 포커싱이 없이 산만했다. 별초를 하는 경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별초에 열심인 반면, 야당 보도는 처삼촌 별초하듯 보도하였다. 3월 25일 KBS <뉴스9> 방송분 시간만 봐도 여당은 02:21, 야당 01:53을 할애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하였다.

○ 한 주 KBS <뉴스9> 보도 특징 : ①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적 빅이슈를 애써 외면한 편집이었다. 여야 후보 한 꼭지씩 기계적인 균형을 잡아 보도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사에 여·야의 후보 단일화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경험으로 보아 KBS <뉴스9>의 야권 단일화 보도는 이례적으로 편파적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②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이틀 고 박원순 전 시장 옹호 발언 논란을 다루지 않았다. ③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첫 재판이 3주 연기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II. 구제불능 '민주당(여당) 본색' MBC

● 4·7보궐선거 관련 MBC <뉴스데스크>의 여당 후보 정책은 홍보, 야당 후보 의혹은 부풀리기 프레임 보도는 계속됐다. 철저하게 민주당 소속 후보 입장을 반영한 논조였다. 특히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이슈에서 민주당 제기 의혹은 상세하게, 오 후보와

국민의힘 측 해명, 반박은 간단하게 처리하는 식으로 양적, 질적 불균형을 보였다. 박영선 후보 측 각종 의혹과 비판여론에 대해선 침묵했다. 사실상 은폐수준이다.

● 지난 한주 야권분열상(이전투구형)만 집중 부각시켰던 <뉴스데스크> 속 [정참시]의 편파보도도 계속됐다. 이해찬 전 대표의 원색적인 야권 후보 인신공격을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단일화를 이룬 야권의 화학적 결합을 방해하는 듯한 이간계형 보도도 지속됐다.

● 소위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문건’을 입수해 MB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야당 후보에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 박 후보에 대한 ‘MB아바타’ 프레임은 민주당의 선거전략인데, MBC가 민주당에 힘을 신는 이 프레임대로 보도하고 있다. 박 후보가 사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MBC는 민주당 발 “~(사찰) 보고받았을 것” “~알았을 것” “~소명해야”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한 정치공세와 주장을 검증, 비판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MBC가 여권이 짜놓은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1. 여전한 ‘야권단일화’ 방해꾼 MBC <뉴스데스크>

▶ <여론조사에 야권 다시 설전…박영선은 공약 행보> (3.22)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6255_34936.html

○ 서울시장 보궐선거전 보도는 야권의 후보단일화 오세훈-안철수 후보 양쪽 간 설전 중심으로, 박영선 후보는 공약행보로 묶어 보도하는 특징을 보였다.

▶ 서울시장 야권 후보 오세훈 확정…10년 만에 재도전 (3.23)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7400_34936.html

○ 내용 :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는 했지만, 따로 회견을 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본격 선거전을 앞두고, 두 야당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확정됐다면서도, 야권 단일화 성공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듯한 멘트를 이어갔다.

▶ 서울시장 대진표 확정…여야 전략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7402_34936.html

○ 내용 : “그만큼 1대1 구도가 확정된 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박영선 대 오세훈, 두 사람의 인물 경쟁 구도를 만들면 판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4선 의원 경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험 등을 볼 때 10년의 정치 공백이 있는 오세훈 후보보다 인물 면에선 낫다는 겁니다.”

○ 계속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회의적, 비관적, 실패 프레임에서 보도하고 있다.

▶[정참시] 신발끈 고쳐 매고 '전진'은 어디로…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7548_34936.html

○ 내용 : “경선과정에서 안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기싸움이 좀 있었잖아요. '정신이 이상하다' '상왕이다' 이런 자극적인 말들이 오갔는데, 오늘도 김 위원장의 표현은 다소 냉랭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1야당의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안철수 후보에겐) 그동안에 야권의 흥행을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 후보도 김 위원장을 바로 만나겠다고 했다가 오후엔 좀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후략)

○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후 안철수 대표의 대선행보 및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권통합에 관한 전망을 담았다. 김종인 위원장과 안 후보 간 남은 양금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야권 단일화 화학적 결합을 방해하는 보도, 이간계형 보도였다.

2. 野엔 ‘의혹 확대·공격·왜곡’ 與엔 ‘의혹 침묵·축소·물타기’

▶ '내곡동 땅' 정조준한 여당…“노무현 정부 때 지정” (3.22)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6256_34936.html

○ 내용 : 오세훈 후보의 말바꾸기를 강조하는 보도. 민주당 쪽 의혹제기, 공격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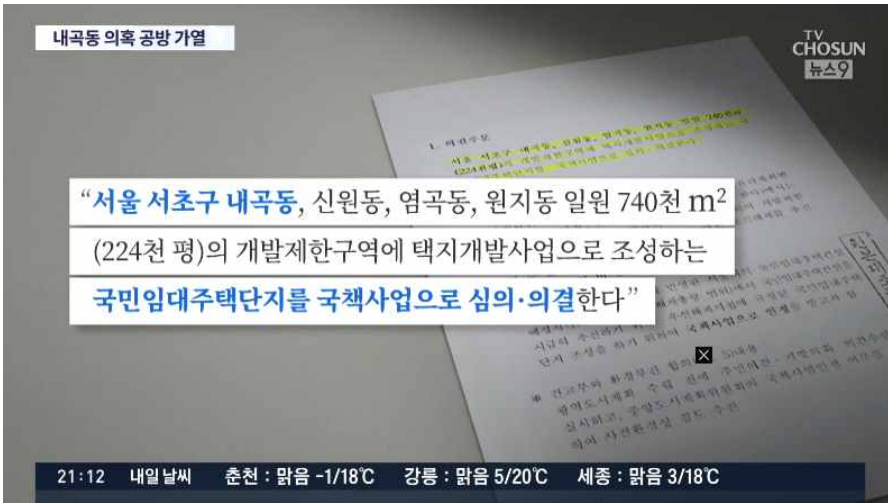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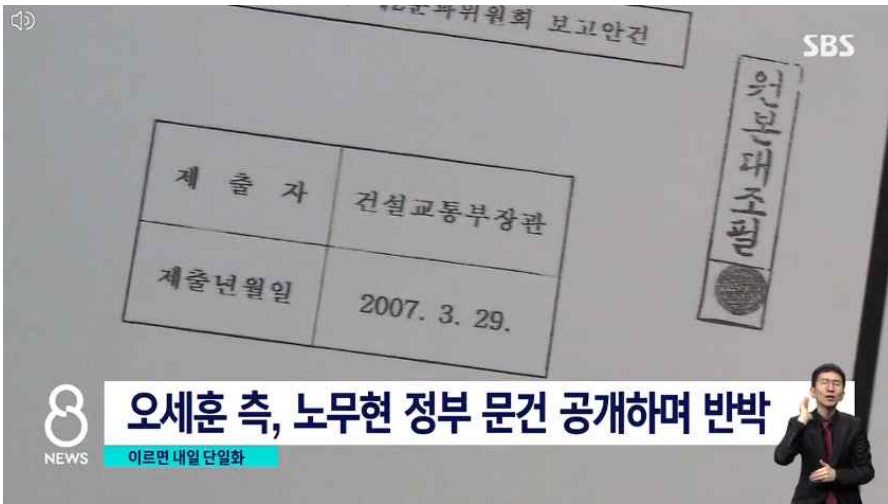
세히 소개하고 오세훈 후보의 짧은 반박, 민주당의 재반박, 단일화 경쟁 후보자인 안 후보의 비판까지 있어 이어지는 구성의 리포트. 오세훈 후보 공격에 초점을 맞춘 리포트였다. 오 후보 서울시장 당시 주택국장이 서울시의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는 가급적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라고 했다는 오 시장의 언급을 소개하면서 곧 바로 민주당이 "사실상의 양심선언"이라며 오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서울시장 시정과 관련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관련된 보고 이지, 처갓집 땅과 관련된 보고였겠냐"는 오 후보 쪽의 반박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았다. 그동안 오 후보 관련 주장의 거짓말 여부나 타당성 여부를 MBC 자체적으로 검증, 반박하던 태도와는 판판이다. 오 후보가 시의회에서 처갓집 땅과 관련된 보고를 했다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민주당의 공격이 억지임을 알 수 있는데 뉴스데스크는 이런 점은 따지지 않았다.

- 또 <뉴스데스크>는 같은 날 오 후보 측이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내곡동에 국민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이 의결됐다”는 공문을 공개했는데, MBC는 보도하지 않은 반면, 다른 언론(TV조선 與 의혹 제기)에 뒤처 '盧때 내곡지구 의결' 국토부 문건 공개) (SBS 8시뉴스-'무상급식·부동산' 설전...이르면 23일 단일화>에서는 문건을 화면에 띄워 설명, 보도했다.

- 이러한 리포트 구성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 입장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일반적인 언론보도의 원칙에 맞는다. 그러나 MBC는 다른 언론사와 다르게 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해명을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당연히 오 후보에 불리하다. <뉴스데스크>는 화면에 문건을 띄우지 않고 야당 대변인의 반박 장면만을 보여줌으로써 내곡동 땅 의혹을 '사실관계'가 아닌 '정치공방'으로 비치도록 교묘하게 편파방송을 했다.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1항, 2항, 제6조(형평성) 1항, 제8조(객관성) 객관성 2항, 제12조(사실 보도) 위반 소지가 있다.



(위로부터 SBS, TV조선, MBC의 순서. MBC 보도는 다른 언론사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 야권은 '도쿄 아파트' 쟁점화…“MB 사찰에 쫓겨가” (3.22)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6257_34936.html

○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해명에 방점을 뒀다. MBC는 기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선 여당의 의혹 제기를 위주로 오 후보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의혹을 키우는 보도를 해온 반면 박 후보는 의혹 해소에 해명을 둔 리포트 구성이다. 그동안 뉴스데스크가 보여온 ‘오세훈 공격, 박영선 해명’ 프레임의 전형이다. 특히 화면 구성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넣어 환기시켰다. 이러한 화면 구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반감을 가진 여권 지지층 결집용으로 보인다.

- 오 후보의 경우 다른 인사(안철수)의 비판, 의혹까지 끌어들이며 의혹을 더 키우고, 박 후보는 다른 인사(홍준표)의 사과를 끌어들이며 의혹을 푸는 것(잠재우기)으로 리포트를 구성했다. 이러한 양면성은 MBC가 박 후보와 오 후보에 대해 전혀 다른 잣대로 보도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도쿄 아파트 매각했다는 박 후보의 주장도 검증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박 후보는 도쿄 아파트를 2월에 매각했다고 했으나, 계약금만 받은 상황이고 잔금을 6월 18일에 받는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하면 매각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뉴스데스크>가 짚었어야 하는데 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이 리포트는 박 후보 주장은 전적으로 믿고 더 나아가 의혹을 덮는 효과, 박 후보의 의혹제기에 대해 여성 비하(도쿄에 아파트를 가진 아줌마)라는 비판이 제기된 안철수 후보 발언까지 싸잡아 야권 후보를 공격하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 아파트' 쟁점화 MBC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18일)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되어서 일본에 가서 5년간 도쿄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구입한 거예요.

'도쿄 아파트' 쟁점화 MBC

남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니 일본으로 건너간 것 결과적으로 일이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도쿄 아파트' 쟁점화 MBC

9억 7천만 원 재산 신고.. 지난달 매각

'도쿄 아파트' 쟁점화 MBC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유튜브 '이봉규TV')

부동산으로 재산증식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

▶ [정참시] 이해찬 등판에 野 후보 우측으로…대선구도 염두? (3.22)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6349_34936.html

○ 내용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7일 시사타파tv]

- (Q. 오세훈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완전히 MB(이명박)키즈야. 다만 MB는 국가를 상대로 해먹은거고 오세훈(후보)는 시를 상대로 해먹은 거예요. 심보는 똑같은 거예요."

- (Q. 안철수 후보는?) "자기당을 제대로 할 생각을 안하고 남의 당에 와서 기웃거리기나하고...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화는 뿌리가 없는데 무슨 생명력이 있고 향기가 나요. 그건 꽃아났다 버리면 그만이지."

○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야권의 반응과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원색적인 야권 후보 인신공격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도했다. 해당 발언을 그대로 전한다고 해도 부적절한 발언임을 지적해야 하는데, 뉴스데스크는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는 편파성을 보였다. 만일 야권 인사의 발언이었다면 이런 발언들은 '막말 프레임'으로 보도되었을 텐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만은 예외였다.

▶ [단독] 4년 전 건물 지어놓고…박형준 부인의 수상한 미등기 (3.23)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7501_34936.html

▶ [단독] "정치활동 생각 접어"…지시 하루 만에 나온 사찰 보고서 (3.23)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7502_34936.html

○ 이날 <뉴스데스크>는 박형준 후보 관련 의혹 단독보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광상언 변호사에 대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사찰 관련 단독보도를 연달아 보도했다.

○ 4·7 보궐선거 앞두고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이 MBC 등 친여매체에 유입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보고서가 친여매체로 입수되어 보도되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국정원장(박지원 전 의원)이 정치공작에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임을 볼 때 정황상 국정원 등의 정치(선거)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보도다.

▶ "오세훈은 MB 아바타…보수 위장한 극우 정치인" (3.24)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8347_34936.html

▶ "박영선은 문재인 아바타…공약은 '돈폴리즘'" (3.24)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8348_34936.html

○ 서울시장 선거전, 여야 후보에 대한 불공정 편집이 두드러졌다. 24일 <뉴스데스크>는 오프닝과 함께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상대방에 대한 공세를 두 꼭지로 나눠서 소개했다.

○ "오세훈은 MB 아바타…보수 위장한 극우 정치인" VS "박영선은 문재인 아바타…공약은 돈풀리즘"

○ 양 후보에 대한 보도시간은 2분11초씩으로 같았지만, 박영선 후보의 오세훈 후보에 대한 극우정치인 공세 꼭지에서는 과거 오세훈 후보의 광화문 집회 연설 영상을 삽입, 박 후보 쪽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편집을 했다. ‘극우 프레임’ 씌우기다. 중도층을 결집시킨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정치공작형 보도다. 반면 오세훈 후보의 박 후보에 대한 공세는 오 후보와 국민의힘 관계자 코멘트만 소개하는데 그쳤다.

▶ <'수상한 미등기' 뒤늦게 재산신고…선관위 "진상조사"> (3.24)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8349_3493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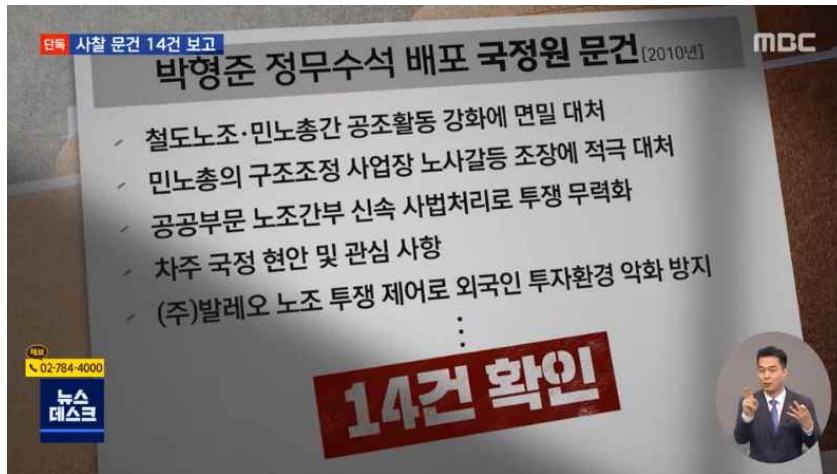
○ 단독보도 형식으로 어제(23일)에 이어 연일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를 폈다. 전일 M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대한 속보 형식의 보도였다.

▶ [단독] 박형준 정무수석 때도 국정원 사찰 문건 14건 보고 (3.24)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8353_34936.html

○ 국정원 문건 14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수석실에 모두 배포된 문건이다. <뉴스데스크>는 ‘박형준 정무수석 배포 국정원 문건(2010년)’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마치 박형준 당시 수석이 직접 작성해 배포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8조(객관성)제1항, 제12조(사실 보도)제1항 위반



▶ [단독] 커피 팔아 투쟁자금?…친환경·유기농 업체까지 사찰 (3.24)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8354_34936.html

○ 내용 :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문건은 노조 관련 내용만은 아니었습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퇴출시키고 제작진을 좌천시키라는 문건, 진보단체들이 주도한 친환경 공정무역 상품에 대해 탄압을 지시한 문건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 후보는 일절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또 한 번 모르쇠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조명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단독] 박형준만 못 받았다?…임태희 "사찰문건 우편물 가듯 전달"> (3.26)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30352_34936.html

○ 국정원 사찰문건 문제를 박형준 후보와 연결해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민간인 사찰 프레임’으로 박형준 후보에 공세를 퍼붓는 보도다.

○ ‘MB 아바타’ 프레임은 민주당과 여당 후보들이 야권 박형준 후보를 공격하는 기본 공격 프레임이다. 그런데 이에 보조를 맞춘 듯 MBC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찰문건을 어디서부터인가 입수해 연일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MBC가 여권이 짜놓은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합리적 분석을 낳는다.

▶ [정참시] 중원 쟁탈전 시동…MB아바타.박원순 시즌2…맞공세 (3.24)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8408_34936.html

○ 내용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중원 쟁탈전 시동... '박원순 시즌2·MB아바타' 맞공세]인데... 중원 쟁탈, 결국 이번 선거도 누가 중도층을 더 많이 확보할지 싸움인데 먼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은 오늘 광주로 갔어요? (중략)

기자 : 작년에만도 다섯번, 그 중엔 5.18 묘역 '무릎 사과'도 있었는데, '5.18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걸 두고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 확보, 특히 서울에 사는 호남 기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선 광주 방문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후략)

○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생각과 판단 기준이 중도층을 구분짓는 잣대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MBC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생각하면 중도이고 다르게 생각하면 중도가 아닌 것 같은 단편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주는 보도를 했다. 특히 광주로 내려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서울 부산 등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호남 출신 유권자들을 의식한 것인데도 이 행보가 마치 중도층을 의식한 행보인 것처럼 보도했다. 중도층은 다면적, 다층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5.18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한 가지 잣대로만 분석할 수 없다. 이런 보도가 위험한 것은 민주당 지지층인 호남 사람들이 마치 전부 중도인 것처럼 왜곡된 시각을 심어주는 위험한 보도다.

○ '5.18 특별법' 처리 지연은 기본적으로 국회 절대 다수인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모든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보도였다.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8조(객관성)제1항, 제12조(사실보도)제1항 및 제3항 위반

▶ <불붙는 선거전...박영선·오세훈 '부동산 민심' 공략>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30350_34936.html

▶ <"대통령 중증 치매"·"부산은 암 3기"...약자 울리는 '막말'>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30351_34936.html

○ 논란에 휩싸인 여야 모두 막말을 퍼부었다는 양비론형 보도다. 오세훈 후보가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란 비유를 쓰며 비판한 것을 막말로, 이와 비교해 부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은 암3

기 환자' 비유를 쓴 것을 비판했다.

- 차이점은 오 후보의 발언은 여당 박주민 의원의 비판, 야권의 김종인 위원장 등의 여야 막론 코멘트를 동원해 오 후보의 발언이 의심할 바 없는 잘못으로 보도하고 김 후보 발언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SNS에 "김영춘 씨 발언에 화가 나 '민주당이 암환자다'라는 글을 올렸다 바로 지웠다,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함께 보도한 점이다. 이러한 보도는 '김영춘만 문제냐, 같은 비유를 든 국민의힘도 문제다'라는 뉘앙스를 담은 것으로 김영춘 후보 발언 몰타기 효과를 노린 보도다. 양비론으로 여당 막말을 희석했다.

○ 박영선 후보의 친정 MBC는 이번 주 보도 역시 박 후보에 불리한 "20대 지지율 낮은 이유는 역사 경험치가 낮아서" 등의 논란이 된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다. 또 막말 프레임을 보도하려면 형평성에 맞춰 오세훈 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들이 한 발언 논란을 묶어 보도해야하는데, 박 후보는 빼고 여권이 판세가 절망적인 부산의 김영춘 후보를 오세훈 후보와 엮어서 보도했다. MBC가 박 후보에 불리한 발언이나 이슈는 알아서 제외하는 박영선 언론캠프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TV조선의 경우 : <"文 치매" 뭉 과거 발언 논란...朴은 "20대 역사 경험치 낮다는 얘기도">, <김영춘 "부산, 3기 암환자" 논란...與 "박형준 부부 부정축재 게이트">로 보도)

▶ "땅 위치도 모른다더니 와서 측량?"..."사실무근" (3.27)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31249_34936.html

○ KBS가 <오세훈 처가, 2005년 6월 개발용역 직전 내곡동 땅 '경계 측량'>, <복수 경작인 "내곡동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있었다">는 보도로 오 후보 처가가 2005년 6월 땅을 측량했고, 측량 당시 오 후보도 현장에 있었다는 경작인 2명의 증언을 보도하는 등 2쪽으로 KBS가 보도한 것을 방송사 중 유일하게 MBC만 받아 보도했다.

☞ MBC <뉴스데스크> 한주 간 보도 특징 : ○ MBC는 23일 다른 언론(TV조선-임종석 "박원순,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 채널A [여량야랑] 코너 <임종석 "박원순의 향기를 느낀다">들이 보도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가해성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다. ○ MBC는 단일화 이후 오세훈과 안철수의 공동유세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다른 언론사(TV조선 7시뉴스-<뭉-安 손잡고 첫 두벽이 유세...뭉 "서울시 공동경영 논의">, SBS 8시뉴스-<박영선 "쫓겨난 시장"...오세훈 "젊은 층 지지 영광">)와는 다른 보도태도다. ○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장에서 한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 해야 한다" 막말은 보도하지 않고 은폐했다.

☞ 기타 :

▶ 직원 월급은 깎아도 회장 연봉은 꺾충…총수라서? (3.27)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31304_34936.html

○ 항공과 호텔업계 모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직원들의 연봉이 대폭 삭감됐는데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연봉이 각각 40%, 50% 넘게 올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MBC의 내로남불. 경영적자에 시달리던 MBC는 최근 임원 보수 총액을 기존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방문진에 요구했다. MBC노동조합에 의하면 MBC는 2021년부터 만20년차 이상 직원들 임금을 삭감해 연간 14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부담안을 밀어붙인 뒤 영업외 이익으로 분류됐던 부동산 임대료 수익 110억 원을 영업이익으로 바꾸는 회계기준을 바꿔 흑자로 만들어 임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다. MBC는 제 눈의 들보는 못보는 내로남불형 보도다.

● 참고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 제4조(정치적 중립) ①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형평성)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객관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제11조(제작기술상의 균형) 선거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음향과 음성, 촬영, 화면구성, 조명 등의 기술적 측면에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실 보도)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대놓고 여당옹호는 난감, 그러나 '눈치껏' SBS <8시뉴스>

1. 군소후보 부각시킨 SBS

○ 관련 기사 2건

▶ 군소 후보들도 '표심 공략'... "거대 양당과 달라요" (3.2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58801

○ 서울시장 선거 벽보가 꽤 길쭉. 박영선, 오세훈 후보 말고도 10명이 더 나서 거대 양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꽤 익숙한 후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주말 유세에 나선 민생당 이수봉 후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를 외칩니다. [이수봉/민생당 서울시장 후보 : 서로 복수하는 정치가 진짜 정치입니까. 썩어빠진 양당 세력을 심판하는 정치가 진짜 정치 아니겠습니까. 민생당 전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직전 지방선거에서 3% 이상 득표했기 때문에, 거대양당 후보들과 함께 선관위 주최 3자 토론회에도 나섭니다.

▶ "쓰레기" vs "대역죄"...네거티브 공방 (3.2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5794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이번 선거전에도 상대를 겨냥한 험한 말들이 등장했습니다. '분리수거 할 쓰레기'라거나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에 함께한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쓰레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곡동 땅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윤 의원은 선거날에 "분리수거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야당 후보 검증 TF도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몰랐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변명만 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오세훈 후보 유세장에서도 거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26일) 문재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에 비유했다 논란

이 일자 오늘은 직설적으로 얘기하겠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주택정책에 실패한 대역죄'라고 직격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주택 가격 올려놓은 건 정말 그것은요, 천추에 남을 큰 대역죄라고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니에요.] 검증을 내세운 네거티브 공방에 화력이 집중되면서 후보들간 정책 경쟁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 팩트체크 플러스 : 방송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여, 여당에 편을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후보들도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방송은 이때 일수록 공정성이 필요하다. 공정한 심판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은 오히려 모든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도 좋은 전략이다. 선거 방송의 의미를 되 세길 필요가 있다.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4.).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권 프레임에 갇혀

○ 관련기사 3건

▶ "박영선은 미래, 오세훈은 낡고 실패한 시장" (3.2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5280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박영선은 미래고, 오세훈은 과거다.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된 직후 나온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일성입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할 때 만들어진 세빛둥둥섬 등을 예로 들면서 "전시행정을 했다"는 주장을 폈고, "서울시민은 그런 행정이 반복되길 원치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 '무상급식·부동산' 설전...이르면 23일 단일화 (3.2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5132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엄마 같은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이 되면 유치원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연합 오세훈 후보의 과거사를 겨냥했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에도 아이를 차별했고 그 이후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사퇴한 후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내곡동 처가 땅 보상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당 조직력이 강한 오 후보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오세훈/국민연합 서울시장 후보 :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 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오세훈, LH 원조 격" vs "박영선, 박원순 시즌2" (3.2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5414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보상 의혹을 LH 사건과 연결 지었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CBS 라디오) :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곡동 문제는 지금 LH 사태의 원조 격인 것입니다.]...흑색선전을 멈추라던 오 후보도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세훈/국민연합 서울시장 후보 :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박 후보의 전 시민 10만 원 지급 공약은 돈을 푸는 인기영합주의, 돈풀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팩트체크 플러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야당에 대해 비판의 수위가 높다. 집권당은 원래 정책 대결을 유도하는데, 자신의 권력을 갖고 권력을 갖지 못한 야당에게 원색적 네거티브 전략을 폈다. 자신들이 지난 4년 간 한 일에 대해 전혀 고려가 없었다. 자기반성은 전혀 없고, 야당 반대에만 화력을 집중시켰다. 그렇지만 방송보도는 비판을 넘어, 공약 프레임까지 챙겨줄 때 사회갈등이 줄어든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방송의 불공정성이 괄목했다.

○ 관련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①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한 주의 보도특징 종합 :

○ 3.23(수) MBC와 KBS는 야권 단일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최종 선출된 것을 당일 톱기사로 뽑지 않았고, 관련 뉴스도 각각 3쪽지와 2쪽지만 다루서 야권 단일화의 파

급을 축소하려는 듯한 편집 태도를 보였다. 채널A는 6쪽지, SBS, TV조선, JTBC는 5쪽지씩 보도하였다. 오세훈 후보는 TV조선에는 직접 출연을 했고, SBS와 JTBC와는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3.23).

○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냐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이번 보궐선거 판세가 박빙이 될수록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끌어올 수 있는 중도 표심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MBC와 KBS는 화학적 결합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을 한 반면, TV조선 채널A SBS JTBC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3.23).

○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3.25(목) 각 방송사는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동선을 따라가며, 양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도했다. 이날 양당의 선거 유세에서 단연 화제를 모은 것은 오세훈 후보와 치열한 대결을 펼쳤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유세전에 합류한 것이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의 향방이 이번 선거의 승부를 좌우할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연설 sync를 MBC는 소개하지 않았다(3.25).

IV. TBS,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김어준의 선거운동'도 시작

■ 4.7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선거운동'도 더욱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3.22~26) 역시 진행자 김어준 씨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에게 각종 의혹을 덧씌우고 부풀린 반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연일 감싸고 띄워줬다.

■ 김 씨의 발언 중 일부를 살펴보면,

○ 오세훈 후보 처가 일가 8인의 공동 상속분에 대해 “처가 땅이라고 하는데, 상속 받았으면 부인 땅이고 36억은 부부 재산이 되는 겁니다”라며 모두 ‘부부 재산’이라고 왜곡했고(3.22), “처가 땅이라고 할 거면, 왜 박영선 후보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는 박영선 시대 아파트라고 하지 않는 겁니까?” 등 처가 일가 공동 상속분과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억지 비교하며 연일 오 후보만 비판하였다(3.24).

▶ 지난주 방송에서는 국민의힘 광상도 의원이 제기한 ‘오거돈 일가 가덕도 인근 8만평

보유' 언론 보도에 대해 김어준 씨는 “제목 장사거든요. 50년 전에 매입한 땅입니다”, “부동산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제목을 던져주는 것, 언론하고 포털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보는데”, “50년 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양 측에 다른 잣대를 사용하는 편파적 시각을 드러냈다.

○ 박형준 후보 엘시티 매입 과정에 대해 “이걸 믿으라는 건가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등 진행자 본인의 주관적 입장을 청취자에게 강요하는 듯 발언하였다(3.25).

○ 또 오세훈 후보의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찬조 연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박영선 후보의 국회 모임(전광훈 목사 모임)으로는 커버가 안 될 겁니다” 등 두 후보에게 차별적 잣대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오 후보의 이념 성향을 트집 잡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3.25).

■ 해당 기간에 편성된 인터뷰 중 여야 정치인들의 ‘양자 토론’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들만 8명이 출연, 단 1명의 예외도 없이 오세훈·박형준 후보를 비난하거나 허위사실을 쏟아냈다.

※ 출연자 내역

-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서기호·양지열·신장식 변호사(이상 3.22), 김원이 민주당 의원(3.23), 배진교 정의당 의원(3.24), 익명의 전직 국회 직원, 박영선 민주당 후보(이상 3.25)

○ 박영선 민주당 후보, 김원이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연일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반면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의혹은 적극 해명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도 두둔했다.

○ 또 객관적 증거도 없이 박형준 후보 측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교수의 일방적 주장에 이어(3.22), 익명의 뒤에 숨은 전직 국회사무처 직원의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도 장시간 방송했다(3.25).

○ 3인의 법률 전문가 역시 일관되게 국민의힘 후보들의 의혹만 부풀리고,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는 이미 “클리어”됐다는 식의 형평성 잃은 언급이었다(3.22).

■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급진 진보 유튜브 수준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김어준 씨는 “국민의 힘은 출연을 거부했습니다”라며 기

올어진 방송내용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 힘 측에 떠넘기는 식의 발언을 했다.

○ 그러나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는 출연하지 않는 측의 견해를 대변할 다른 인사들이라도 섭외해 최소한의 균형·형평을 맞추므로써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의무가 프로그램 진행자와 방송사에 있다.

※ 일례로 종편들은 2012년 출범 초기 민주당에서 출연을 거부하자, 대신 다른 진보 인사들을 출연시켰었다.

○ 관련 선거 방송심의 규정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8조(객관성)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2항 위반

■ 4.7보선의 야당 후보가 오세훈, 박형준 후보로 압축된 이후, 연일 <뉴스공장>의 방송내용은 두 야당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로 여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감마저 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대부분이 일방적인 의혹제기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다루어 짐으로써 방송시간의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다. 이는 청취에 피로감과 지루함을 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뉴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고 있다.

V. 기타: YTN과 MBN의 문제적 보도

1.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3.23 07:20)

■ 장경태 민주당 의원 인터뷰에서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에 있는 자기 땅을 셀프 지정해서 36억의 개발 이익을 받기도 했는데요”, “셀프보상 과정도 내곡동에 있던 자기 땅에 대해 36억이나 되는 개발이익을 받았는데요”, “자기 땅만 270만원에 보상이 이뤄졌다던지” 등

▶ 오세훈 후보 처가 일가가 공동 상속받은 토지를 ‘자기 땅’이라며 계속 언급하여 오세훈 후보 소유인 것으로 들리게 왜곡했다.

○ 관련 선거 방송심의 규정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8조(객관성)제1항 위반

■ YTN <뉴스가 있는 저녁(3.24 19:20)> 최영일 시사평론가 대담에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각종 문서들을 보여주며 상세히 소개한 반면, 오 후보가 제시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토부 문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으며 마치 오 후보 측이 문서 등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혹을 회피하고 있는 듯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광화문 집회 연설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은 자세히 소개한 반면, 당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박영선 후보의 전광훈 행사 참석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세훈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방송했다.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8조(객관성)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3.24).

2. <MBN 종합뉴스> “'빨간 넥타이' 원팀...금태섭도 합류” 리포트(3.24 19:20)

○ “(기자)안 대표의 깜짝 등장은 안 대표와 각을 세워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방문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성사됐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단일화 이튿날 상대 측 의원총회 방문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보이고, 더욱이 김종인 위원장은 현직 의원이 아님에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성사됐습니다’라며 안 대표의 국민의힘 방문을 폄하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12조(사실 보도)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3.24). 끝.